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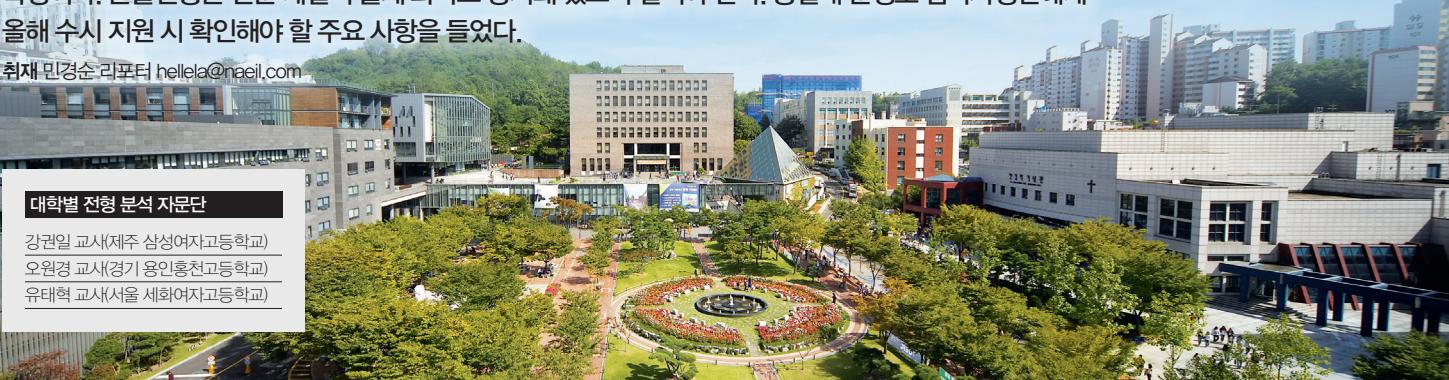
2026 대학별
수시 분석

송실대

교과반영방법 바꾸고 최저기준 완화한 교과전형 주목

송실대는 2026학년 수시 모집에서 총 1천719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 중 자연 계열이 51.0%(877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문 계열은 26.4%, 경상 계열은 20.2%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생부우수자는 교과 반영 방법에서 교과별 반영 비율과 진로선택 과목 수에 따른 비율을 변경했다. 또한, 작년에 완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로 더 완화했다. 자연 계열 및 자유전공학부(자연) 지원자는 최저 기준 반영 시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적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으며,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50%, 면접 50%로 면접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논술전형은 인문 계열의 출제 과목도 명시돼 있으니 살펴야 한다. 송실대 문정호 입학사정관에게 올해 수시 지원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들었다.

최재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Q 2025 대입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2025 대입은 자유전공학부 신설이 가장 큰 이슈였다. 송실대는 자유전공학부를 계열을 구분해 교과전형인 학생부우수자전형과 수능 위주인 정시에서 선발했다. 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인문)은 등록자 평균이 2.04등급이었는데, 인문(2.34)·경상(2.28) 계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유전공학부(자연)의 평균 등급은 2.17등급으로, 자연 계열의 입시 결과와 유사했다.

경쟁률은 모든 전형에서 상승했다. 학생부우수자전형 인문 계열은 7.96:1에서 12.77:1로, 경상 계열은 6.62:1에서 12.19:1, 자연 계열은 6.11:1에서 8.31:1로 상승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인문 계열은 46.3%에서 64.1%로, 경상 계열은 40.5%에서 63.1%로 상승한 데 반해 자연 계열은 58.7%에서 53.9%로 하락했다.

Q 학생부 교과 반영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경상 계열의 수학 교과 비중이 높다는 고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 계열과 같은 수준인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국어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2026학년에는 진로선택 과목의 최대 취득 비율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진로선택 과목을 1개 선택해 A를 받은 수험생은 만점(20점)을 받았던 반면, 3과목을 선택해 A, A, B를 받았다면 19.66점을 받았다. 이는 현재 교육과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한 경우 문제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전형을 설계했다. 즉,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면 20%, 2개는 18%, 1개는 16% 등 과목 이수 수에 따라 최대 취득 비율을 제한한다. 이는 수험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Q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최저 기준에서 수학, 탐구 제한에 차이가 있는데?

교과전형에서 자연 계열, 자유전공 학부(자연)은 입학 후 학업 적응 등의 사유로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탐구(1)로 수능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필수 응시가 아닌 선택 과목 제한이므로, 이들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저 기준을 다른 과목으로 충족한다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논술전형은 선택 과목 제한이 없다. 2027학년부터는 교과전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Q SSU미래인재의 면접 비율을

50%로 늘렸다. 면접의 영향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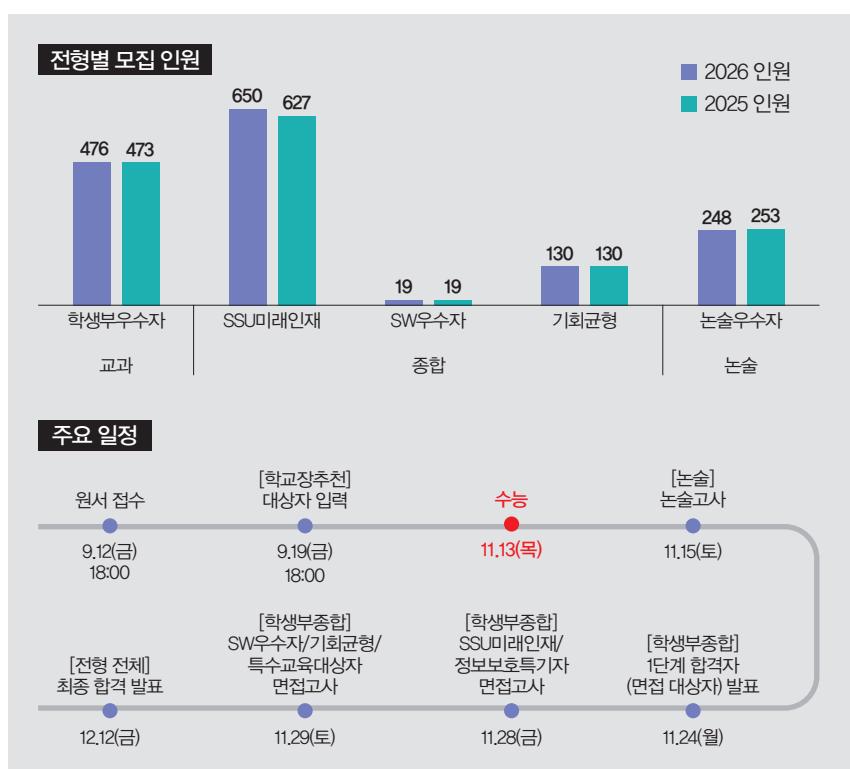
면접을 서류 평가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신만의 우수한 역량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2025학년 기준 서류 평가에서 합격권의 2~3배수

2026 송실대 수시 Overview								
전형	전형명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교과	학생부우수자-학교장 추천	교과 100 ※ 추천 인원 제한 없음	계열	국	화	미/기	영	사
			인문/경상/ 자유전공(인문)	○	○	○	1	2합 6
			자연/자유전공(자연)	○	○		1	2합 6
종합	SSU미래인재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X					
	기회균형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X					
논술	논술우수자	논술 80+교과 20	계열	국	화	미/기	영	사
			인문/경상/자연	○	○	○	1	2합 5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국(국어), 화(화률과 통계), 미/기(미적분/기하), 영(영어), 사(사탐), 과(과탐), 한(한국사)을 각각 의미하며, '사/과'와 한국사의 숫자는 각각 반영 과목 수와 등급을 말함.

'최저'의 '2합 6'은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라는 뜻.

* 세부 시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강 참조.



에 위치했던 지원자 중 65.6%가 최종 등록했을 정도로 면접의 영향력이 높다.

Q 서류 평가에서 진로 역량 비율이 50%로 높다.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진로 역량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평가 요소이다. 특히 진로

역량은 진로 탐색 노력, 전공(계열) 적합성,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중 ‘진로 탐색 노력’은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세부 평가 항목이다. 지원자가 진로를 찾아나간 과정과 실행 노력을 살핀다.

이때 진로는 지원 전공(계열)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성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공(계열)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지원한 전공·계열과 관련된 수업과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해 왔는지 중점적으로 평가 한다. 진로 역량은 학생부 기록 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을 지닌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해 계열을 구분했다. 또한 특정 계열로 쏠림이 있을 시 그 피해는 수험생에게 일정 부분 돌아간다. 무전공으로 입학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전공 선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계열에 따라 교과 반영 비율을 달리했다.

Q 승실대의 특성화학과나 추천 학과를 소개한다면?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에 국내 최초로 AI대학을 신설했다. AI소프트웨어학부와 정보보호학과가 소속돼 있다.

AI소프트웨어학부는 기존의 학과 구분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정보보호, AI 시스템 등 4개 전공 트랙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6학년부터 166명(정원 외 6명 포함)을 선발한다. 1~2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을 이수한 뒤, 3학년 진급 시 희망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도 2학년 진급 시 AI소프트웨어학부로 진입할 수 있어 유연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정보보호 트랙은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정보보호학과는 2024학년부터 LG유플러스와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전원에게 2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2학년 수료 후 별도 선발을 통해 졸업 시까지 다양한 장학 혜택과 LG유플러스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AI대학을 주목하면 좋겠다.

Q 계열을 구분해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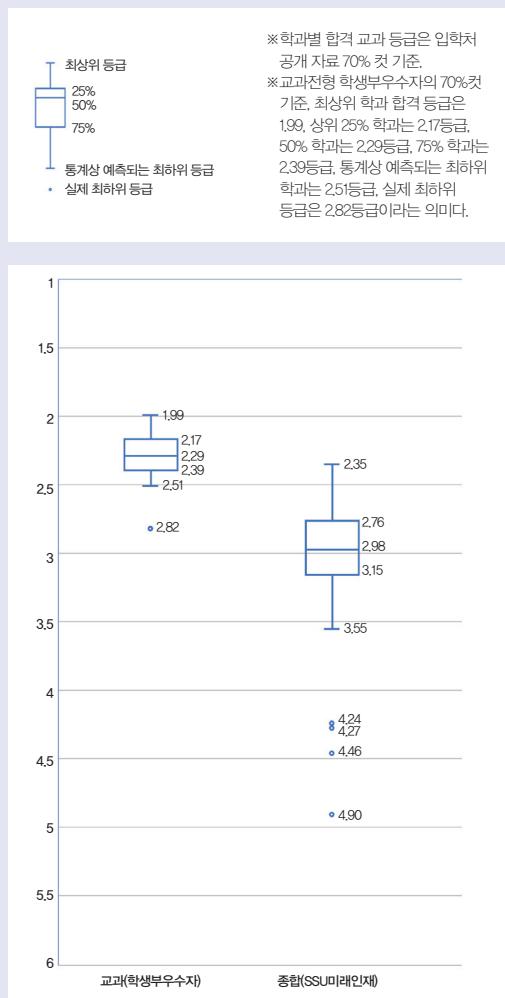
수시 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전형으로만 선발한다. 인문과 자연으로 계열을 구분하는데, 인문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를, 자연은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과학 25%를 반영한다.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전공 선택에 제한은 없지만, 다양한 학업 과정과 성향

Q 2028 대입 전형 설계와 관련해 고민하는 점은?

다양한 선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가 상대평가로 운영됨에 따라 교과전형에서 정성 평가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 범위가 고1~2학년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험생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 분포를 고려해 정시전형의 운영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학년 수시 모집부터 종합전형 내 ‘서류형 전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성실한 학교 생활과 전공에 대한 탐색 노력을 서류 중심으로 평가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승실대 수시 결과 REPORT



입학 결과

● 경쟁률

상위 3개 학과

	교과전형 학생부우수자	종합전형 SSU미래인재
1	불어불문학과(5) 20	의생명시스템학부(13) 38.6
2	독어독문학과(4) 18.5	언론홍보학과(6) 28.3
3	정치외교학과(4) 17.3	일어일문학과(9) 26.8

하위 3개 학과

	교과전형 학생부우수자	종합전형 SSU미래인재
1	의생명시스템학부(9) 6.3	회계학과(12) 9.8
2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전공)(16) 6.4	경제학과(18) 11.2
3	수학과(8) 6.5	기독교학과(24),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15) 11.3

※ () 안은 모집 인원

● 교과 등급(70%컷)

상위 3개 학과

	교과전형 학생부우수자	종합전형 SSU미래인재
1	컴퓨터학부 1.99	컴퓨터학부 2.35
2	화학과 2.06	정보보호학과 2.49
3	물리학과, 화학공학과 2.08	소프트웨어학부 2.50

하위 3개 학과

	교과전형 학생부우수자	종합전형 SSU미래인재
1	평생교육학과 2.82	일어일문학과 4.90
2	건축학부(건축학·건축공학전공) 2.51	불어불문학과 4.46
3	불어불문학과 2.48	독어독문학과 4.27

※ 어디가 발표 기준

자문 교사의 2026 승실대 수시 합격 Advice

2025학년 수시 학생부우수자전형의 경쟁률은 10.28:1이었다.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어불문학과가 20.0:1로 가장 높았다. 입학처가 공개한 등록자 기준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전반적으로 2등급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자연 계열은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소재공학과는 경쟁률 14.0:1, 최종 합격자 평균 2.12등급,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전공)은 경쟁률 7.51, 평균 2.07등급, 전자정보공학부(T융합전공)은 7.81, 평균 2.13등급, 컴퓨터학부는 경쟁률 6.6:1, 평균 1.95등급, 소프트웨어학부는 경쟁률 6.9:1, 평균 2.02등급을 기록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인문 계열 64.1%, 경상 계열 63.1%, 자연 계열 53.9%, 자유전공학부(인문) 68.2%, 자유전공학부(자연) 55.9%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에서 6 이내로 완화되는 만큼 합격생의 교과 등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SSU미래인재전형도 16.08:1의 경쟁률을 기록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등록자 기준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2~3등급대에 집중됐다. 특히 자연 계열은 평균 2등급 중·후반에서 형성됐다.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는 2.30등급, 컴퓨터학부는 2.31등급, 소프트웨어학부는 2.52등급으로 높았다. 다만, 인문 계열은 사학과 2.62등급, 영어영문학과 3.46등급, 일어일문학과 3.97등급 등 모집 단위에 따라 등급 격차가 존재했다. SSU미래인재전형은 면접의 비율이 높으므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한다. 올해부터 인문 계열도 출제 범위를 명시했다. 인문 계열은 국어·사회(역사/도덕) 한국사를, 경상 계열은 <수학><수학 I><사회·문화><경제>로 변경, 구체화했다. 자연 계열은 <수학><수학 I><수학 II><미적분>에서 출제한다. 논술고사와 모의논술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으니 활용하길 바란다. ④